

아시아 평화 공동성명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소비자운동,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소비자·생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투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에 많은 시민이 휘말려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이들을 포함한 온갖 생명을 앗아가고, 상처를 주며, 생활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이를 목격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필살로 다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시민들은 일본 헌법에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결의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에 관한 3대 문서를 개정, 억지력이란 명목 하에 방위비를 앞으로 5년 간 총액 43조엔(약 374조 5000억 원)으로 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전수방위에서 선제공격으로 안전보장의 개념을 180도 전환하여, 또다시 전쟁으로 치달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본에서는 안보 3대 문서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 행동에 90개가 넘는 단체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에 의하면, 세계의 군사비랭킹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일하게 상위 10위 전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이나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 전쟁의 경험을 통해, 군비확대는 결코 공격을 억지시키는 힘이 되지 않으며 전쟁의 길을 닦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삶으로 슬그머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으로 군 확대 움직임이 진행 중인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의 소비자단체·시민단체들은 연대를 통해 반전과 평화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온하게 안심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 빈곤, 인권의 억압, 차별, 환경파괴 등이 없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협하는 사태들을 우리들의 일로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모든 대립적 과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어짐을 한층 넓히고 심화하여,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일본소비자연맹(일본)

주부연합회(일본)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국)